일본 방적의 유니폼 소재

– 워킹 웨어 시장에서는 바닥시세 느낌

일본 방적 업계의 유니폼 소재는 그동안 시황이 계속 좋지 않았으며, 특히 유니폼 소재 중에서도 점유율이 큰 워킹 웨어(working wear) 용도는 2008년 후반부터 파급된 세계 동시 불황과 이에 따른 일본 국내 제조업의 감산과 인원 삭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만 현재에 이르러 워킹의 시황이 좋지 않으면서 바닥시세를 보였다는 견해가 강해졌다. 일본 방적의 유니폼 소재의 현상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본다.

“엔드 유저(end-user)인 일본 국내 제조업의 시황이 나쁘며, 워킹 용도는 판매 수량이 줄었다.”는 것은 방적의 유니폼 소재 담당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 조사(總務省 統計局 勞動力 調査)를 보면, 2009년 7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39만 명으로, 2008년의 같은 달과 비교하면 106만 명이 줄었고, 건설업은 520만 명으로 23만 명이 줄었다. 이런 상황이 워킹 소재의 판매로 바로 이어졌다. 시키보는 “상반기는 2008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20% 줄었다.”고 하고, 닛신보 텍스타일은 “15 ~ 20%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원래 각사가 모두 2009년기에는 시황이 아주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짜놓고 있으므로, 구라보는 “이익 측면은 계획대로이었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워킹은 생산의 조정이 한 바퀴 돌아왔으므로 시황이 바닥시세를 보였다는 견해가 강한데 “2009년기 중에 경기가 급히 회복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모두 견해가 같다. 수요가 기업(需要家 企業)이 연간(年

間)의 예산 계획에 경비 삭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는 본격적인 회복은 2010년기부터나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닛신보 텍스타일은 서비스 유니폼(service uniform)과 의료(醫療) 및 식품 분야의 백의(白衣)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다.”고 하고, 유니티카 텍스타일은 “서비스와 의료·식품 분야의 백의 소재의 시황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모두 같았다. 다시 총무성의 데이터를 보면, 2009년 7월에 숙박업·음식 서비스업은 380만 명이며, 2008년 동월과 비교하여 13만 명이 늘었고, 의료·고령자 간호(醫療·高齡者 看護)는 622만 명으로 36만 명이 늘었다. 서비스와 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적 각사들도 2009년기는 서비스와 백의(白衣) 소재에 많은 힘을 집중하였다.

여기서 갑자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방적에서 장단 복합 소재를 강력하게 제안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 국내 합섬 메이커들이 연달아 폴리에스터 장섬유 생산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몇 해 사이에 서비스나 백의 분야는 합섬이 우위성을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메이커가 일본 국내에서 원사 생산으로부터 물러나고 있어, 일부 어패럴들 사이에서 합섬 메이커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소재의 안정된 공급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래서 장단 복합 소재를 제안하려는 방적들이 많다. “원래 유니폼은 폴리에스터 65%, 면 35%가 주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섬 리치 소재(合纖 rich 素材)에 대한 저항감은 없다.” “이런 찬스에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다른 합섬 메이커나 상사로 넘어가고 만다. 방적도 과감하게 장섬유를 사용한 소재로 도전해야 한다.”고 방적 관계자 중에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시장이 변화하는 계기에 유니폼 소재 메이커의 설 자리가 물 밑에서 빠르게 움직이

고 있다.♣